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스승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생님에게 꽃을 선물하고 있다.

올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 선정

군산시 '지방', 3년간 국비 6억 지원받아

전북도가 지난 13일 2022년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에 군산시 '지방' 단체가 최종 선정돼 3년간 국비 6억을 지원받아 2022년도 완주군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에서는 총 13개 청년단체(10개 시, 군)가 접수, 서류심사를 통해 6개 단체에 대한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가 이뤄졌고 군산시의 (주) '지방' (대표 조원승) 단체가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그간 전북도 선정 사례로는 2021년도 완주군 '씨앗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아저씨, 로컬의 미래 다음타운'이 선정돼 5억을 지원 받아 거점공간과 매개공간을 통한 정보공유, 지역탐색, 창업창업, 교류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다.

군산시의 (주) '지방' 단체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먼저,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혁신·술이 익는 마을'을 추진목표로, 양조를 기반으로 청년자립 및 지역활력을 도모한다.

로드맵으로는 양조를 체험하는 관계 인구 만들기, 양조학교를 통한 전문 양조인 양성, 소규모 양조장 창업 종합지원 및 마을 설계 순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여름철 재난대비 비상체제 돌입

도,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근무체계 구축 총력 대응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예찰 강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전북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만들기에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 13개 협업 가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해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 14일까지를 사전 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 여름철 자연 재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번 대책기간에는 예비특보단계부터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 운영과 5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

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대응체계를 가동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기전(6월말)까지 도와 시·군 합동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를 완료해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재해약자 사전피해 및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사전예찰 등을 강화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홍수 특보 및 홍수 정보 제공 지점(66개소)에 대해 안전조치계획 및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올해 홍

수 발생 예상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한계, 도내 둔치주차장 전체 8개소 중 지난해까지 5개소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했고, 나머지 3개소에도 우기 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침수위험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해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 차단 시스템'을 올해 우기 전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6월 중 도내 시·군 관리 배수펌프장(44개) 및 우수저류시설(18개)에 대해서도 가동상태,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전수 점검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는 TV와 라디오,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도민행동요령 등 주민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 발생시 재난문자(BS) 등을 활용, 도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유관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하향 조정해 홍수 대비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 기간(6월 21일~9월 20일) 기준수위를 5월 중에 설정해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댐 수문 방류 24시간 전 사전 예고 제도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비 시간을 부여하고, 댐 방류 의사결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 내 홍수조절위원회'를 운영, 지역주민·지자체와 분기별 '댐 운영 소통회의'를 개최하는 등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여름철에 시·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 전북도, 채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채용기업 장려금 8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취업 성공시 장려금 월 50만원씩 8개월간 지원

전북도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사업)으로 지역내 자동차산업 위기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선패사업은 군산발 자동차산업 침체가 고용위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 익산·김제·완주와 컨소시엄으로 5년간 추진하는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3년차로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75억 원을 투입해 4개의 프로젝트, 8개의 세부사업, 15개의 단위사업으로 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연관산업에서 실직했거나 실직위기에 처한 위기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연관산업 위기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은 익산·김제·완주지역 내 자동차 연관 기업 또는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 100만원씩 8개월간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채용자에게 지원하는 취업장려금은 익산·김제·완주지역 내 자동차 연관산업 위기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취업에 성공하면 월 50만원씩 8개월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채용장려금과 취업장려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 공고문은 전북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http://www.jwar.k.or.kr/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